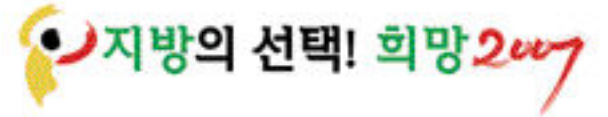


한국지방신문협회 대선 3차 공동 여론조사



# 이명박, 범여 단일후보 누가 돼도 압승

## ■ 범여권 단일화 때 가상 대결

범여권 후보가 단일화될 경우를 가정, 정동영, 문국현, 이인제 후보가 각각 단일 후보로 출마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등과 3자 대결을 펼칠 경우 어느 경우에도 이명박 후보가 큰 격차로 이길 것으로 전망됐다.

다만 광주, 전남, 전북에서는 정 후보가 이명박 후보를 크게 앞질렀고, 이인제 후보도 전남에선 이명박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.

▲이명박 vs 정동영 vs 권영길 이 후보가 55.2%를 얻어 24.2%인 정 후보를 2배 이상 앞섰다. 권 후보는 6.1%였다. 이 후보에 대한 지지는 확률이 높을수록(대체 이상 59.3%), 학생(64.4%) 및 자영업자(60.4%), 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(401만 원 이상 63.5%), 보수적 정치성향(66.8%) 계층에서 특히 높은 반면, 정 후보에 대한 지지는 진보적 정치성향(35.4%) 계층과 확률이 낮을수록(중졸 이하 27.8%)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. 정 후보는 전북(68.0%)과 광주(55.3%), 전남(54.1%) 등 세 곳에서 이 후보에 2배 이상의 압도적 우위를 지키며 선두를 달렸다.

▲이명박 vs 이인제 vs 권영길 이명박 후보가 61.6%로 11.8%에 그친 이

인제 후보를 5배 이상 앞섰다. 권 후보는 10.4%로 이인제 후보와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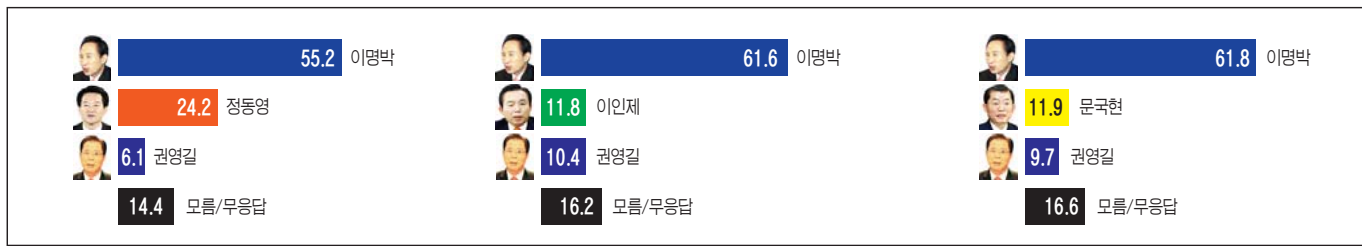
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는 대구·경북(73.3%)과 인천·경기(70.4%), 부산·울산·경남(67.9%) 출신 유권자와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 평가자(72.8%)에서 높게 나타났다. 이인제 후보 지지도는 호남 출신(23.3%)과 민주당(51.5%) 및 대통합민주신당(28.3%)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.

이인제 후보는 특히 16개 시·도중 유일하게 전남에서 41.7%를 얻어 20.5%에 그친 이명박 후보를 앞선 반면, 서울·경기·부산 등 7개 지역에서는 권 후보에게도 밀렸다. 이인제 후보의 출신지역인 충남에서는 이명박 53.5%, 이인제 19.3%로 조사됐다.

▲이명박 vs 문국현 vs 권영길 이 후보가 61.8%를 기록해 11.9%에 머문 문 후보를 압도했다. 권 후보는 9.7%를 얻어 오차범위내에서 문 후보를 추격했다.

문 후보는 대부분 지역에서 이 후보에 밀렸지만 광주(30.9%)와 전북(19.4%), 전남(19.3%)에서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, 진보적 정치성향층(20.7%)에서도 비교적 높은 지지를 얻었다.

가상대결 (단위:%)



이명박 vs 정동영 vs 권영길, 55.2 대 24.2 대 6.1%

이명박 vs 이인제 vs 권영길, 61.6 대 11.8 대 10.4%

이명박 vs 문국현 vs 권영길, 61.8 대 11.9 대 9.7%



## 정동영 후보가 가장 적합 35.3%

### ■ 남북정상회담 계승 적임은

지난 2-4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'성과가 있었다'는 응답이 57.2%('매우 성과있었다' 10.1% + '어느 정도 성과있었다' 47.1%)로 '성과가 없었다' 34.2%('별로 없었다' 30.1% + '전혀 없었다' 4.1%)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.

긍정적인 응답은 광주(76.6%)와 전남(74.4%), 전북(72.6%)에서, 부정적인 응답은 대구(43.7%)와 경남(43.1%), 인천(41.4%)에서 각각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. 남북정상회담의 긍정적 성과를 다음 정부

### ■ 남북정상회담 성과 평가



에서 계승·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로는 35.3%가 정동영 후보를 꼽아 가장 많았다. 하지만 이명박 후보도 28.2%를 얻어 2위를 차지, 큰 격차는 보이지 않았다. 문국현 후보는 3.1%, 권영길 후보는 2.2%, 이인제 후보는 1.9%를 각각 얻었다.

## ■ 여론조사 어떻게 했나

### 전국 3,400명 전화조사

한국지방신문협회 '제3차 대선 공동여론조사'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(Research & Research : 대표 노규형)에 의뢰해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선출 직후인 지난 15일 오후 7시부터 17일 밤 10시까지 사흘동안 실시됐다.

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3천4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. 전국 16개 시·도별로 200~300명씩 할당해 표본을 추출한 뒤 그 결과에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했다.

조사에는 구조화된 질문지와 속달된 전문 면접원에 의한 전화조사 방식이 사용됐다.

각 시·도에서의 성별·연령별 할당 표본 추출은 통계청의 2006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인구(외국인 제외)를 근거로 삼았다.

전체 조사의 최대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서 ±1.7%포인트다. 서울과 경기는 ±5.7%포인트, 광주와 전남 등 나머지 14개 시·도는 ±6.9%포인트다.

## '경제 해결이 우선' 83.3%

### ■ '평화'냐 '경제'냐

연말 대선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'평화'와 '경제' 문제와 관련 선호하는 차기 대통령의 스타일을 묻은 결과 '경제문제를 잘 해결할 사람'이 83.3%로 '한반도 평화문제를 잘 해결할 사람' 10.4%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.

대선을 관통하는 양대 화두 가운데 일단 '경제' 쪽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. 이는 최근 지표상의 경제 호전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까지 그 효과가 파급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 실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탓으로 풀이된다. 유권자의 보수화 경향에 따른 성장 우선

### ■ 선호 대통령 스타일: 평화&경제



주의 확산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. 정치권은 이달 초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 이슈에서 평화이슈로 이번 대선의 화두가 전환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워왔으나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.

## 남북정상회담 이후 상승세 뚜렷

### ■ 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

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'잘하고 있다'는 응답이 38.2%('매우 잘한다' 3.4% + '대체로 잘한다' 34.8%)로 1차 조사(6월)때의 28.4%, 2차 조사(8월) 때 30.4%에 비해 상승했다.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.

노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광주가 66.6%로 최고를 기록했고, 전남 60.6%,

### ■ 노무현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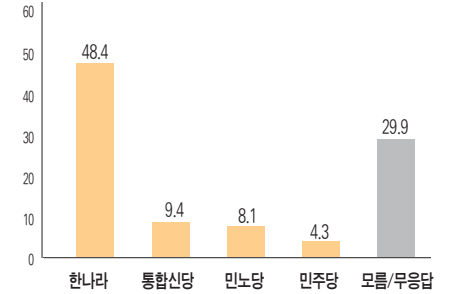
전북 59.1% 등 호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, 부정적 평가는 서울(67.4%)과 대구(66.7%), 경북(60.0%)지역에서 많았다.

## 한나라당 경선 가장 성공적

### ■ 각 정당 경선 평가

주요 정당의 경선이 일단락된 가운데 어느 정당의 경선이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48.4%가 한나라당을 꼽아 가장 많았다. 대통합신당은 9.4%, 민주노동당은 8.1%, 민주당은 4.3%로 한나라당에 비해 크게 저조했다. 대통합신당의 경우 저조한 투표율과 불법·부정선거 논란, 경선일정 잠정 중단 및 연기, 후보 진영 간 폭행과 당 지도부의 경선 관리 미비 등으로 국민을 크게 실망

### ■ 어느 정당의 경선이 가장 성공적이었나 (단위:%)



시킨 탓으로 풀이된다. /정후식기자 who@

Advertisement for '태양상사' (Taeyangsangsa)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building and text about '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' (heating that saves fuel costs significantly) and '다리점 및 취급점 모집' (recruiting branch and handling points).

Advertisement for '총가집 설령탕' (Total Family Settlement Restaurant)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restaurant and text about '확장이전' (expansion and relocation) and '예약전화 062)374-0015'.